

참다랑어 등 양식업에 외부자본 참여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2만t 크루즈 카지노 허가 낙시용 등 소형선박 활성화

해양수산부 2017년까지 여의도면적(2.9km)의 38배에 이르는 '바다 그린벨트'가 풀리고, 양식 면허 제도가 개편돼 외부자본이 참다랑어 등의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크루즈·마리나 산업을 중점 육성해 관광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연안여객선의 경쟁을 유도해 해상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13일 2015년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해양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다 그린벨트' 이용 제한도 완화한다. 2017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3230km 가운대 육지부(368km)의 약 30%에 해당하는 여의도면적(2.9km)의 38배 크기인 110km를 해제해 관광제 등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정제된 수산물의 유통을 찾고자 50년만에 양식면허제도를 개편해 어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정부 부처의 첫 업무보고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회사 법인과 외부자본이 참다랑어, 연어류 등의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허 자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낙시·레저용 선박 수요 증가에 맞춰 소형 선박 건조를 활성화하고 무인도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유수면 이용절차를 간소

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젊은 층의 어업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가공·레저 분야에도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시범마을을 조성해 귀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케이피쉬' 등 수산물 통합 브랜드 개발과 국제 수산박람회 개최, 수출

시장 다변화, 수출가공산업 육성, 우량종자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만t급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가해 국제 선사를 키우기로 했다. 크루즈 산업 육성·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선상 카지노의 걸림돌은 사라진 상황이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허용

농식품부 시장개방 확대에 최대 위기에 직면한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차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수출 경쟁력까지 갖추기 위한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제시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공·관광단지 등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허용, 인공위성을 이용한 작황 예측시스템 개발, 할랄 식품시

1차산업 탈피 수출형 개선

휴양림 조성 규제 완화

장 진출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활용, 청년층 귀농지원 등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중국·할랄식품 시장·온라인 마켓 등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농식품

수출을 지난해보다 15억달러 정도 많은 77억달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수출 비중을 40%대로 늘리기 위해 원산지 관리시스템과 검역·위생기준 등 비관세장벽 대응시스템을 만들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증명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이슬람 율법에 따라 만든 식품에 부

여되는 할랄 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 90%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적극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수출효자종목으로 성공한 파프리카를 본떠 유자차·유제품·버섯·인삼·화훼 등을 '제2 파프리카'로 키워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농식품 안전관리(GAP) 인증을 확대하는 계획도 세웠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허용, 사유 휴양림 조성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100억원 규모의 전문펀드를 조성해 6차산업 분야 창업을 지난해보다 10% 늘릴 계획이다.

'사회 안전망' 고용·산재보험 확 바꾼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3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고자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작동해야 할 '4가지 룰'을 제시했다.

4가지 룰은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다시 일할 수 있는

실업급여 전용계좌 도입

직종별 계약서 적용 확대

룩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이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관련된 일부 실천 과제는

새롭게 제시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20년, 산재보험 50년을 맞아 '보장성과 재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반기에 실업급여 종합개편 방안을, 하반기에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을 각각 마련한다.

산재 근로자 직업복귀 강화, 장애평가기준 개선, 중복급여 방지 등 그간 제기된 48개 산재보험 제도 개선 과제는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장·단기 과제로 구분한 뒤 순

차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실업급여의 수급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용계좌를 도입하고 150만원 미만의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적용,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직접 고용,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공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유료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유료 직업소개소에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연합뉴스



한승원 칼럼

복서풍이 맴지만 나는 두텁게 방한복을 걸치고 머리를 싸맨 뒤 바닷가 모래밭으로 속보 산책을 나간다. 모래 언덕의 작은 비닐 천막 안에서 늙은 어부 부부가 그물 손질을 하고 있다. 봄의 어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매서운 복서풍 속에서는 '봄의 소리 왈츠'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오, 거센 서풍이여~. 너의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죽은 일사귀들이 마법사에게 쫓기는 유령의 때와 같으니~ / 바람이여, 예인의 나팔이 되어 다오! 겨울이 왔으니 봄이 어찌 멀겠느냐!" 함석헌 선생이 엄숙한 독재의 시대에 암송하곤 했다는 영국의 시인 피시 셀리의 시 '서풍에 부치는 노래' 한 구절은 늘 뜨겁게 내 가슴을 설레게 한다.

셀리는 이상주의적 비전을 섬세한 감성으로 노래한 낭만파 서정 시인인데 요절했다. 그의 시를 외우면서 나는, 모든 압제와 인습에 대한 반항과 이상주의적인 사랑과 자유를 동경한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죽어 간다'고 말하지 않고 '살아 간다'고 말한다. 죽음을 죽으려 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살아 내려고 하는 것이다. '죽음까지도 살아 내려고 한다'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려는 것이고, 영원히 살려는 것이다. 석가모니, 예수,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베토벤, 고갱, 몽크, 피카소, 도스토예프스키, 이순신 같은 사람들은 치열하게 산 것임으로, 죽었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다.

잘 살아낸 삶이 꽃이듯이, 죽음도 아름답게 잘 죽으면 꽃인 것이다. 사람의 죽음이 꽃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맑고 향기롭고 진정성 있게 살아야 한다.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최고로 진정성 있는 준비이다. 봄이 화려하려면 겨울에 미리 치열하게 꽃을 준비해야 한다.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구해다 먹고 죽지 않으려고 역치를 쓰는 것은 추한 짓이다. 인간의 생명은 한시적이다. 인

복서풍 속에서 '봄의 소리 왈츠'를

그 시인의 마음을 내 영혼에 각인시키려 한다.

토굴 앞 정원에 앙상한 나목이 되어 있는 매화나무들은 수십만 개의 좁쌀만 한 꽃망울들을 키우고 있다. 빨갛고 붉은 그 망울들이 콩알만큼 커지면 대하는 계획도 세웠다.

의사인 제자 부부가, 이번 수능시험에서 정답 한 칸씩 내려쓰기를 한 까닭에 실패하고 재수를 결심한 아들을 앞세우고 찾아왔을 때, 나는 매화나무의 좁쌀 같은 꽃망울들을 보여주었다. 흑한 겨울은 죽어 있거나, 웅크리고 잠자는 계절이 아니고 치열하게 봄을 준비하는 계절이다.

꽃을 먹는 아이는 소년·소녀 시절을 준비하고,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준비하고, 중고등학생들은 대학 시절을 준비하고, 청년들은 노년을 준비하고 노년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한다. 나는 재수를 결심한 옛된 청년에게 "어느 날 세상에, 자기의 화려한 성과물을 보듬고 나타난 것들은 모두가 이렇게 엄동설한 속에서 치열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무뎌뭇뎌

간이 누리는 권력이야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너, 내려!"와 같은 가진 자의 권위적인 횡포의 시대는 가고 낮은 데로 임하는 화평과 사랑의 시대가 와야 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부정직한 시절은 가고 참된 정직의 시절이 와야 하고, 냉동속 속 같은 불통의 시절은 가고 소통의 시절이 찾아야 한다.

늙은 나는 이제 '이별 연습'이란 말을 사용한다. 세상과의 미련이 없는 이별을 위하여 더욱 뜨겁게 진실로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살아 있는 한 건강해야 하고, 정직하게 삶의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

살아 있는 한 글을 써야 하고 글을 쓰는 한 살아 있어야 한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삶을 성찰하고 진리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하루 한 차례 바닷가 모래밭 속보 산책을 해야 하고, 세상과 내 늙은 아내를 비롯한 모든 귀한 존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다듬어 주어야 한다. 그 이별 연습이 나의 땀땀하면서도 슬픈 준비일 터이다.

<소설가>

1636 결과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기쁜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진김서연'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강선지(주)콜피어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